

청소년의 약물 사용과 비행 실태

— 충청남도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

김 숙 경 (부여 여자 고등학교)
소 회 영 (충남의대 간호학과)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고찰
1. 문제의 제기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 연구의 목적	2. 청소년의 약물 사용 실태
II. 이론적 배경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약물 사용 실태
1. 약물	4. 청소년의 비행 경험
2. 약물 남용의 원인	5. 약물 사용 유무에 따른 비행
3. 약물 사용의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1. 조사 대상	영문초록
2.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3. 연구 도구 및 조사 내용	
4. 분석 방법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청소년기는 신체 및 정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며, 이성과 감성의 부조화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정서의 분열과 통합이 교차되는 과도기이다.

따라서 이들의 충동과 갈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장치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위 환경과 마찰을 빚기도 하며 반항과 공격적 성향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이들의 갈등과 충동을 일차적으로 수용해야 될 가정과 학교가 제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동질성 유지를 위해 또래집단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과 어울려 음주, 흡연, 약물 등 파행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따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하였고 산업화, 공업화의 전파에 따라 남용되는 약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각종 약물을 혼합 병용하는 양상도 두드러지고 있다¹⁾고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현재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 문제가 성문제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으며 그 심각성 정도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비중이 크다²⁾.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의 파급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약물 남용이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약물 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에 약물 남용자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연소화 하는데 따른 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엔 국민학생이나 중학생 등 연소한 학생들까지도 접착제, 신나 등을 흡입한 후 중독 현상이 생겨 자제력을 잃고 폭력 범죄나 자살을 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³⁾.

약물 사용은 모든 연령층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이나 범죄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더욱 크다. 뿐만 아니라 약물 남용은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어 비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중단하기 어려운 정도에까지 이르러 의학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결국 개인,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⁴⁾.

그러므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약물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약물 남용의 문제와 그로 인한 청소년의 비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예방 조치의 첫단계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약물 사용 유무에 따른 비행 경험을 조사, 분석하여 이들 청소년들에게 건강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약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약물 사용과 비행실태를 조사하여 청소년들에게 약물 남용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 1)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14가지 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한다.
- 2)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비행 실태를 파악한다.
- 3)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약물 사용에 따른 비행 실태를 파악한다.
- 4)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한다.
- 5)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불만 대상 및 불만 대상의 수에 따른 약물사용 실태를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약물

인간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붙여진 말에는 3가지가 있다. 즉 사용(Use), 오용(Misuse), 그리고 남용(Abuse)이다. 사용은 의사나 약사가 지시한 대로, 그리고 용법대로 약물을 사용한 것을 말하며⁵⁾, 약물 오용(Drug misuse)은 ‘의사의 의사가 지시한 대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매약인 경우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잘못 이해하여 복용하라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또는 바르라는 약을 복용한 경우가 그와 같은 예가 된다. 또한 1정을 복용하라고 했는데 2정을 복용(과용 : Overuse)했거나, 2정을 복용하라고 했는데 1정을 복용(저용 : Underuse)한 경우이다 그리고 설사시키는 약(변비약 또는 완하제) 대신 설사 멈추는 약(지사제)을 사용하는 경우처럼 용도가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⁶⁾.

즉 약물 사용은 어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학적 용도(Medical use)를 갖고 사용된다.

그러나 약물 남용(Drug abuse)은 의학적 목적 없이, 다시 말해서 치료 용도없이 약물이 비의학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⁷⁾. 예를들면 기침이 날 때 진해제(기침억제약)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기침이 없는 데도 진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것은 진해제를 통하여 어떤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⁹⁾. 이와같은 묘한 감정의 세계(Euphoria)를 잊지못하여 그같은 감정 세계를 다시 얻고자 불법적으로 Morphin을 사용했다면 이것은 의학적 목적이 아닌 감정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약물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약물의 비정상적 사용(Abnormal use) 또는 비의학적 사용(Nonmedical use)으로 약물 남용이라고 한다⁴⁾.

약물 남용의 대상이 되는 남용 약물은 모든 약물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향정신성 약물(Psychotropic drugs)만이 대상이 된다⁴⁾.

약물 남용의 정의는 법적 측면 등 여러 면에서 각기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의학적인 측면만 보면 1966년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에서는 약물남용에 대한 정의를 의학적 감독없이 약물을 스스로 복용하는 것이라고 했다⁵⁾.

한편 1972년 미국정신과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와 국립정신보건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는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에 근거하여 한정된 물질의 불법적, 비의학적 사용을 약물 남용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한정된>이란 말은 모든 물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약물 대신에 물질이란 말을 쓴 것은 약물만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같은 해 Edwin Lipinski는 각종 정의를 간략 명확하게 해야겠다고 하여 <Non-medical use of psychoactive drugs>라고 했다⁵⁾.

WHO(1974)⁹⁾정의에 의하면 약물 남용이란 의료행위의 규정에 맞지 않게 약물을 지속적 혹은 산발적으로 과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APA(1980)에 의하면 약물 남용을 1) 적어도 한달 정도 지속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약물 사용 2) 약물 사용으로 인한 사회 및 직업 기능의 손상 3) 심리적 의존이나 병적 사용 양상 등의 복합적 정의로 규정하고 있다.

약물 남용의 정의를 정리하면 향정신성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행동, 인식력, 그리고 감정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자의에 의한 향정신성 물질(Psychotropic substa-

nces)의 불법적, 비의학적 사용을 말하며 이 같은 행위는 정신 및 정서 손상, 신체 손상, 사회적, 문화적 손상을 가져온다⁵⁾하여 약물 남용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2. 약물 남용의 원인

청소년 약물 남용의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적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Millmann과 Khuri(1981)¹⁰⁾는 여러 다른 사회적, 인격적, 인지적, 생물학적, 약물학적 요인들이 약물 남용과 연관이 된다고 한다.

김현수 등(1988)²⁾은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의 유발적 요인을 질병의 정신적, 생물학적 및 사회적 모형으로 설명한다. Brill과 Hiross(1969)¹¹⁾도 약물 남용시의 상황과 남용자의 성격 발달 과정상의 환경적 문제점을 함께 고려하여 약물 남용의 원인을 설명한다.

서울시 교육 연구원(1988)¹²⁾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단순한 호기심과 모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의 압력이나 영향, 부모에 대한 반발심, 현대 생활의 압력으로부터의 도피, 소외감이나 사회적, 경제적 문제, 정서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약물을 탐닉하게 된다고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물 남용에 관계되는 변인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는 약물 남용자의 성격요인, 사회환경적요인 유전적 소인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1) 성격 요인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사용자의 성격 특징이 다르다. 술의 경우 나타나는 성격 특징은 ① 개인적 통제의 부족¹³⁾ ② 높은 불안과 우울¹⁴⁾ ③ 공격성과 충동성¹⁵⁾ ④ 정신장애와 정동장애¹⁶⁾등이며 마약의 경우에는 자아중심적(Egocentric)특성, 정신적 문제 또는 성격 장애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¹⁷⁾. 환각제의 경우에는 ① 욕구 좌절을 견디지 못함, 완고함, 급함 ② 사회적 개방성, 자신감, 다양한 흥미, ③ 정신병리와 관련성(우울과 성격 장애) 등의 성격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¹⁷⁾고 한다.

약물 남용은 급성 및 만성적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급성적 약물 남용의 경우는 급성적 스트

레스 상황, 즉 중요한 인물의 상실, 가족간의 갈등 문제, 학업 성적의 부진 등과 같은 스트레스에 처해 그 해결책으로서 일시적으로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는 개인 내에 존재하는 심리적 갈등이나 성격 특성, 성격 구조와 약물 남용간에 복잡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견해¹⁸⁾가 있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성격 구조, 즉 성격 장애에 따라 약물의 선호도가 다르고¹⁹⁾, 성격 장애 특히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약물에 취약한 성격²⁰⁾이라고 말한다.

약물 탐닉 행위를 리비도고착(Libido perversion)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정신적 발달에 있어서 생식기 전단계인 구순기(Oral stage) 또는 보다 이전 단계로의 퇴행이 원인이라고 설명한다²¹⁾.

2) 사회 환경적 요인

사회 환경적 범주의 변인들은 크게 가정, 학교 및 또래집단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

가족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부재 또는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와해(Disruption)가 주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부모의 부재 유무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Quality)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²²⁾²³⁾.

양친이나 손위 형제들이 약물 남용을 해온 가정에서 양육된 청소년들은 그들 스스로가 약물 남용자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양친의 태도가 청소년의 약물 복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불화, 양친의 거부(Parental Rejection), 이혼 등이 약물 남용과 관련된다²⁴⁾고 한다.

(2) 학교

Polk & Schafer²⁴⁾는 ① 저소득층 학생 문제 ② 부적절한 교과 자료 및 교재 이용 ③ 부적당한 교육 방법 ④ 지능 검사나 능력별 학급 편성등 많은 학교의 운영 정책과 방법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을 포함한 비행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또 지속시킨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가 이루어져 있어 청소년이 지니는 발달 과정

상의 특수성과 진학문제 등 심한 스트레스가 겹쳐서 약물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시험에 대한 강박 관념, 특히 중3병이나 고3병과 같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으로 각성제를 남용한다²⁵⁾는 것이다.

(3) 또래 집단

Elliot 등 (1985)²⁶⁾에 의하면 또래의 영향은 청소년의 약물 남용 등의 문제 행동에 들어가는 주요한 요인이며, Plant (1975)²⁷⁾역시 청소년 약물 남용은 친구의 직접적 압력에 의해 집단 활동으로 발전된다고 주장한다.

Kandel(1974)²⁸⁾에 의하면, 약물 남용의 시작에 있어 또래와의 상관관계가 부모와의 상관 관계보다 높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이 많은 종류의 약물에 관련되어 있을수록 그의 친구들은 약물 사용자가 많다²⁹⁾고 지적하고 있다.

3) 유전적 소인(Predisposition)

생물학적으로 약물 남용은 Hyper-activity allergic reaction, 유전, 혈당 수준 등과 상관 관계가 있다³⁰⁾고 한다.

유전되는 행동 성향(Inherited behavioral propensities) 또는 기질이 사회적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할 때 마약류의 남용이 명백히 반사회적 성격이나 신경증적 특질과 관련됨을 고려하면 항정신성 물질 남용에 유전적 소인이 작용한다는 가정의 타당성이 주장되고 있다³¹⁾.

이외에도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 과도기에서 그 원인을 찾은 것으로 Chinlund (1974)³²⁾는 약물 남용의 동기를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1) 모험 추구형 (2) 평화 추구형 (3) 교우 관계 유지형 (4) 힘 추구형 (5) 미적 추구형 (6) 성적 추구형 (7) 초월 명상 추구형 등이다.

3. 약물 사용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 실태에 관해 조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상 대상이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뉘어 지는데,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³²⁾²⁵⁾³³⁾와 약물 남용으로 정신과

를 찾는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³⁴⁾³⁵⁾³⁶⁾³⁷⁾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³⁸⁾³⁹⁾⁴⁰⁾⁴¹⁾⁴²⁾ 등이 있다.

이길홍 등(1985)³⁾의 연구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의 52.0%와 학생의 16.3%가 약물 사용 경험이 있고 특히 비행 청소년의 31.4%와 학생의 5.8%는 현재 상습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수, 박인철(1989)⁴³⁾이 약물 남용으로 정신 신경과를 찾은 청소년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사용된 약물은 본드(66.2%), 마리화나와 다른 약물의 혼합 사용(14.3%), 진해제(러미라)(9.5%) 등 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45.2%가 교우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들 약물들을 남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약물 남용은 보통 또래 집단 사이에서 이뤄지며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사교성이 없고 열등감이 심하며 반사회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처음엔 술과 담배를 사용하다가 중독성 높은 기타 약물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중고생들이 사용하는 술과 담배는 습관적인 약물 남용의 전단계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흥경(1990)⁴⁴⁾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이 된 12가지 약물들 중 음주 경험(72.0%), 흡연 경험(44.2%), 각성제(23.9%), 수면제(7.9%), 진해제(7.1%), 본드(5.7%), 신경 안정제(4.9%), 대마초(2.0%), 환각제(1.9%), 코카인(0.9%), 마약(0.6%), 필로폰(0.5%)의 순으로 약물이 사용되고 있었고, 이들 약물을 최초로 사용한 연령은 남학생은 만 15세~16세 때, 여학생은 만 17세~18세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군, 부여군에 소재한 6개 인문계 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이들 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조

사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1990년 12월3일부터 12월8일까지였다.

조사 방법은 각 학교의 양호 교사들에게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취지 및 기재 요령을 설명한 후 양호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자가 기입토록 하여 회수 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1200부였으며 모두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에서 기재가 미비하여 자료 처리가 불가능한 설문지 186부를 제외한 1014부(84.5%)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및 조사 내용

연구 도구는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Michigan 대학의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실시한 조사 방법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생한 학생들의 약물 남용 실태 조사 지침서의 설문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 약물남용연구소에서 작성한 설문지를 본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과 향정신성 약물 및 남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포함하여 모두 14가지 약물(술, 담배, 대마초, 코카인, 각성제, 필로폰, 마약, 환각제, 본드, 수면제, 진통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등에 대한 사용 실태와 그들 약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비행 경험이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X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 일반적인 특성, 비행유무, 14가지 약물 사용 실태는 빈도를 이용하였다.

둘째 : 14가지 약물 사용 실태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는 χ^2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셋째 : 약물사용 유무에 따른 비행 경험은 빈도를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모두 1014명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47.4%, 여학생이 52.6%이었고, 종교는 기독교가 40.7%, 무교를 포함한 기타가 40.2%, 불교 13.7%, 천주교 4.3% 유교 1.0%의 순이었다.

약물 오남용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18.1%이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81.9%로 나타나 약물 오남용 교육이 널리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불만 대상은 사회(70.2%), 학교(56.3%), 자신(53.8%), 친구(30.4%), 가족(29.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각각 67.2%, 73.0%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장 불만 빈도가 낮은 대상은 남학생은 가족(25.6%)이었고 여학생은 친구(31.5%)였다.

이는 김현숙(1991)⁴⁹⁾의 보고에서 남학생은 사회(59.2%), 국가(59.6%)에 대해 가장 불만이 높다고 한 것과는 일치하였으나 여학생은 사회(40.8%)와 국가(40.8%)에 대해서 가장 낮은 불만도를 보여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불만 대상의 수는 남학생이 1가지(33.7%), 여학생은 2가지(29.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 대상이 전혀 없는 남학생이 3.7%, 여학생이 3.0%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표1).

2. 청소년의 약물 사용 실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 실태는 <표2>와 같다. 약물 사용 종류별로 술(70.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진통제(69.2%), 담배(38.6%), 각성제(15.0%), 진해제(14.7%), 항히스타민제(11.2%), 수면제(8.9%), 신경 안정제(7.1%)의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14가지 약물 사용 경험 중에서 음주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술이 지닌 약리적인 특징으로 신체적인 의존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음주는 반복될 것이며 고등학교 남학생들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표 1>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

특 성		남 (N=481)	여 (N=533)	계 (N=1014)
종 교	기 독 교	175(36.4)	238(44.6)	413(40.7)
	천 주 교	14(2.9)	30(5.6)	44(4.4)
	불 교	72(15.0)	67(12.6)	139(13.7)
	유 교	7(1.4)	3(0.6)	10(1.0)
	기 타	213(44.3)	195(36.6)	408(40.2)
약물오남용 교육 여부 불만 대상	받 았 다	117(24.3)	67(12.6)	184(18.1)
	안받았다	364(75.7)	466(87.4)	830(81.9)
	자 신	219(45.5)	327(61.4)	546(53.8)
	친 구	140(29.1)	168(31.5)	308(30.4)
	가 족	123(25.6)	174(32.6)	297(29.3)
	학 교	267(55.5)	304(57.0)	571(56.3)
불만대상의 수	0	18(3.7)	16(3.0)	34(3.4)
	1	162(33.7)	126(23.6)	288(28.4)
	2	143(29.7)	158(29.6)	301(29.7)
	3	69(14.3)	108(20.3)	177(17.5)
	4	35(7.3)	31(5.8)	66(6.5)
	5	54(11.2)	94(17.6)	148(14.6)

만연된 문제인데 그 다음 항정신성 약물 남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현상이 건강면에서나 교육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에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약물 사용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볼때, 대부분 남학생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나 진통제(79.7%), 각성제(16.1%)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과 춘성 지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주왕기 등(1989)⁴⁹⁾의 연구에서도 알콜(70.1%), 각성제(15.0%), 환각제(1.4%)는 유사한 빈도를 나타냈으나, 코카인(1.3%)과 마약(0.7%)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연구보다 빈도가 낮게 보고 되었다.

14가지 약물을 최초로 사용한 연령은 <표3>과 같다. 마약, 진해제, 항히스타민제를 제외하고는 15~18세에 처음으로 약물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해제와 항히스타민제는 10세 이전에 가장 높은 빈도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마초와 각성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2년 빠른 시기에 그 외에는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빠르거나 같은 시기에 처음 사용하게 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약물 사용 실태

단위 : 명 (%)

N	사용경험 있음												사용경험 없음		
	사용경험 있음			지난해도 사용			현재 사용			계			사용경험 없음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481	533	1014	481	533	1014	481	533	1014	481	533	1014	481	533	1014
담배	119	36	155	26	3	29	202	5	207	347	44	391	134	489	623
	(24.7)	(6.8)	(15.3)	(5.4)	(0.3)	(2.9)	(42.0)	(0.9)	(20.3)	(72.1)	(8.8)	(38.6)	(27.9)	(91.7)	(61.4)
술	134	185	319	44	45	89	256	47	303	434	277	711	47	256	303
	(27.9)	(34.7)	(31.5)	(9.2)	(8.4)	(8.8)	(53.2)	(8.8)	(29.9)	(90.2)	(52.7)	(70.1)	(9.8)	(48.0)	(29.9)
대마초	13	2	15	4	-	4	4	-	4	21	2	23	460	531	991
	(2.7)	(0.4)	(1.5)	(0.8)		(0.4)	(0.8)		(0.4)	(4.4)	(0.4)	(2.7)	(95.6)	(99.6)	(97.7)
코카인	4	-	4	4	-	4	1	-	1	9	-	9	472	533	1005
	(0.8)		(0.4)	(0.8)		(0.4)	(0.2)		(0.1)	(1.9)		(0.9)	(98.1)	(100)	(99.1)
각성제	39	64	103	12	10	22	15	12	27	66	86	152	415	447	862
	(8.1)	(12.0)	(10.2)	(2.5)	(1.9)	(2.2)	(3.1)	(2.3)	(2.7)	(13.7)	(16.1)	(15.0)	(86.3)	(83.9)	(85.0)
필로폰	3	-	3	3	-	3	-	-	-	6	-	6	475	533	1008
	(0.6)		(0.3)	(0.6)		(0.3)				(1.2)		(0.6)	(98.8)	(100)	(99.4)
마약	3	2	5	1	-	1	-	-	-	4	2	6	477	531	1008
	(0.6)	(0.4)	(0.5)	(0.2)		(0.1)				(0.8)	(0.4)	(0.6)	(99.2)	(99.6)	(99.4)
환각제	7	1	8	4	-	4	2	-	2	13	1	14	468	532	1000
	(1.5)	(0.2)	(0.8)	(0.8)		(0.4)	(0.4)		(0.2)	(2.7)	(0.2)	(1.4)	(97.3)	(99.8)	(98.6)
본드	20	5	25	7	1	8	7	3	10	34	9	43	447	524	971
	(4.2)	(0.9)	(2.5)	(1.5)	(0.2)	(0.8)	(1.5)	(0.6)	(1.0)	(7.1)	(1.7)	(4.2)	(92.9)	(98.3)	(95.8)
신경	36	20	56	6	5	11	4	1	5	46	26	72	435	507	942
	(7.5)	(3.8)	(5.6)	(1.2)	(0.9)	(1.1)	(0.8)	(0.2)	(0.5)	(9.7)	(4.9)	(7.1)	(90.4)	(95.1)	(92.9)
안정제	43	20	63	8	4	12	12	3	15	63	27	90	418	506	924
	(8.9)	(3.8)	(6.2)	(1.7)	(0.8)	(1.2)	(2.5)	(0.6)	(1.5)	(13.1)	(5.1)	(8.9)	(86.9)	(94.9)	(91.1)
진통제	167	249	416	51	92	143	59	84	143	277	425	702	204	108	312
	(34.7)	(46.7)	(41.0)	(10.6)	(17.3)	(14.1)	(12.3)	(15.0)	(14.1)	(57.6)	(79.7)	(69.2)	(42.4)	(20.3)	(30.8)
진해제	63	30	93	36	2	38	14	4	18	113	36	149	368	497	865
	(13.1)	(5.6)	(9.2)	(7.5)	(0.4)	(3.7)	(2.9)	(0.8)	(1.8)	(23.5)	(6.8)	(14.7)	(76.5)	(93.2)	(85.3)
항히스	44	49	93	11	5	16	4	1	5	59	55	114	422	478	900
	(9.1)	(9.2)	(9.2)	(2.3)	(0.9)	(1.6)	(0.8)	(0.2)	(0.5)	(12.3)	(10.3)	(11.2)	(87.7)	(89.7)	(88.8)

이는 본 연구와 주왕기 등(1989)⁴⁴⁾의 보고와 김현숙(1991)⁴²⁾의 보고가 일치하므로써 강원도나 제주도, 그리고 충청도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이들 약물들을 접하게 되는 시기는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 현수, 박 인철(1989)⁴³⁾의 보고에서는

약물남용으로 정신과를 찾는 청소년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로 13~15세(47.6%)때 처음으로 사용 약물들을 접한 것으로 나타나 약물 사용시기가 빠를수록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학생 중 현재 사용 실태를

〈표 3〉 최초 약물 사용 연령 분포

단위 : 명 (%)

	10세 이전			11~12세			13~14세			15~16세			17~18세			19세 이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N	481	533	1014	481	533	1014	481	533	1014	481	533	1014	481	533	1014	481	533	1014
담배	43	13	56	21	5	26	19	3	22	78	5	83	156	13	169	29	5	34
	(8.9)	(2.4)	(5.5)	(4.4)	(0.9)	(2.6)	(4.0)	(0.6)	(2.2)	(16.2)	(0.9)	(8.2)	(32.4)	(2.4)	(16.7)	(6.0)	(0.9)	(3.4)
술	46	33	79	18	4	22	40	21	61	116	38	154	185	161	346	29	20	49
	(9.6)	(6.2)	(7.8)	(3.7)	(0.8)	(2.2)	(8.3)	(3.9)	(6.0)	(24.1)	(7.1)	(15.2)	(38.5)	(30.2)	(34.1)	(6.0)	(3.8)	(4.8)
대마초	1	-	1	-	-	-	3	-	3	7	1	8	8	-	8	1	-	1
	(0.2)		(0.1)				(0.6)		(0.3)	(1.5)	(0.2)	(0.8)	(1.7)		(0.8)	(0.2)		(0.1)
코카인	-	-	-	2	-	2	1	-	1	2	-	2	3	-	3	-	-	-
				(0.4)		(0.2)	(0.2)		(0.1)	(0.4)		(0.2)	(0.6)		(0.3)			
각성제	-	2	2	2	1	3	9	7	16	23	41	64	26	30	56	6	4	10
		(0.4)	(0.2)	(0.4)	(0.2)	(0.3)	(1.9)	(1.3)	(1.6)	(4.8)	(7.7)	(6.3)	(5.4)	(5.6)	(5.5)	(1.2)	(0.8)	(1.0)
필로폰	-	-	-	-	-	-	2	-	2	4	-	4	-	-	-	-	-	-
							(0.4)		(0.2)	(0.8)		(0.4)						
마약	-	-	-	-	-	-	3	2	5	1	-	1	-	-	-	-	-	-
							(0.6)	(0.4)	(0.5)	(0.2)		(0.1)						
환각제	-	-	-	1	-	1	3	-	3	6	-	6	3	1	4	-	-	-
			(0.2)	(0.1)		(0.6)	(0.3)		(1.2)	(0.6)		(0.6)	(0.2)	(0.4)				
본드	2	-	2	1	-	1	7	-	7	7	3	10	16	4	20	1	2	3
	(0.4)		(0.2)	(0.2)		(0.1)	(1.5)		(0.7)	(1.5)	(0.6)	(1.0)	(3.3)	(0.8)	(2.0)	(0.2)	(0.4)	(0.3)
신경	5	1	6	3	1	4	3	-	3	16	5	21	15	17	32	4	2	6
안정제	(1.0)	(0.2)	(0.6)	(0.6)	(0.2)	(0.4)	(0.6)		(0.3)	(3.3)	(0.9)	(2.1)	(3.1)	(3.2)	(3.2)	(0.8)	(0.4)	(0.6)
수면제	4	-	4	4	-	4	7	1	8	16	8	24	26	16	42	6	2	8
	(0.8)		(0.4)	(0.8)		(0.4)	(1.5)	(0.2)	(0.8)	(3.3)	(1.5)	(2.4)	(5.4)	(3.0)	(4.1)	(1.2)	(0.4)	(0.8)
진통제	86	84	170	46	44	90	49	64	113	49	130	179	44	97	141	2	6	8
	(17.9)	(15.8)	(16.8)	(9.6)	(8.3)	(8.9)	(10.2)	(12.0)	(11.1)	(10.2)	(24.4)	(17.7)	(9.1)	(18.2)	(13.9)	(0.4)	(1.1)	(0.8)
진해제	53	14	67	19	8	27	14	5	19	8	5	13	17	4	21	2	-	2
	(11.0)	(2.6)	(6.6)	(4.0)	(1.5)	(2.7)	(2.9)	(0.9)	(1.9)	(1.7)	(0.9)	(1.3)	(3.5)	(0.8)	(2.1)	(0.4)		(0.2)
항히스	16	17	33	8	4	12	10	10	20	11	9	20	12	15	27	2	-	2
타민제	(3.3)	(3.2)	(3.3)	(1.7)	(0.8)	(1.2)	(2.1)	(1.9)	(2.0)	(2.3)	(1.7)	(2.0)	(2.5)	(2.8)	(2.7)	(0.4)		(0.2)

알아보기 위하여 한달간 사용 일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전체 대상자 중 매일 사용하는 빈도는 담배가 13.8% 술이 1.7%로 밝혀졌다. 각성제와 항히스타민제는 0.1%, 진통제는 0.2%, 본드는 0.3%가 매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1991)⁴²⁾의 보고에 의하면 매일 사용 빈도가 담배가 13.5%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했으며 술

(2.4%), 진통제(0.5%), 각성제(0.3%)는 본 연구보다 약간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1) 성별에 따른 비교

성별에 따른 약물 사용 실태는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배(p<.001), 술(p<.001), 대마초(p<.001), 코카인(p<.01), 필로폰(p<.01), 환각제(p<.001), 본드(p<.001), 신경 안정제(p<.01), 수면

〈표 4〉 현재 약물 사용자의 1개월 중 약물 남용 기간 분포

단위 : 명 (%) N : 1014

	1~5일	6~19일	20일 이상	매일
담배	40 (3.9)	16 (1.6)	21 (2.1)	130 (13.8)
술	221 (21.8)	33 (3.3)	32 (3.2)	17 (1.7)
대마초	4 (0.4)	-	-	-
코카인	1 (0.1)	-	-	-
각성제	20 (2.0)	4 (0.4)	2 (0.2)	1 (0.1)
필로폰	-	-	-	-
마약	-	-	-	-
환각제	1 (0.1)	1 (0.1)	-	-
본드	4 (0.4)	3 (0.3)	-	3 (0.3)
신경안정제	3 (0.3)	2 (0.2)	-	-
수면제	10 (1.0)	2 (0.2)	3 (0.3)	-
진통제	124 (12.2)	8 (0.8)	9 (0.9)	2 (0.2)
진해제	15 (1.5)	3 (0.3)	-	-
항히스타민제	2 (0.2)	1 (0.1)	1 (0.1)	1 (0.1)

제 ($p < .001$), 진통제 ($p < .001$), 진해제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남학생은 진통제를 제외한 10가지 약물에서 사용 빈도가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진통제의 경우는 남학생이 57.6%, 여학생이 79.7%로 여학생의 사용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김명희(1982)가 32.3%의 여학생이 월경시 진통제를 복용한다고 보고하여 여학생이 생리적인 문제로 남학생보다 더 많은 진통제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왕기 등(1989)⁴⁴⁾도 진해제와 마약을 제외하고 남학생이 더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했으며, 김현숙(1991)⁴²⁾도 진해제와 각성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물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게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종교에 따른 비교

종교에 따른 약물 사용 실태는 〈표6〉과 같이 담배 ($p < .01$), 대마초 ($p < .05$), 코카인 ($p < .05$), 각성제 ($p < .05$), 환각제 ($p < .05$)의 사용 빈도가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나머지는 종교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약물 사용 실태

단위 : 명 (%)

	남 자 (N=481)	여 자 (N=533)	χ^2
담배	347 (72.1)	44 (8.3)	35.572 ***
술	434 (90.2)	277 (52.0)	76.627 ***
대마초	21 (4.4)	2 (0.4)	18.161 ***
코카인	98 (1.9)	-	10.063 **
각성제	66 (13.7)	86 (16.1)	1.156
필로폰	6 (0.6)	-	6.688 **
마약	4 (0.8)	2 (0.4)	0.895
환각제	13 (2.7)	1 (0.2)	11.746 ***
본드	34 (7.1)	9 (1.7)	18.021 ***
신경안정제	46 (9.6)	26 (4.9)	8.414 **
수면제	63 (13.1)	27 (5.1)	20.167 ***
진통제	277 (57.6)	426 (79.7)	58.227 ***
진해제	113 (23.5)	36 (6.8)	56.521 ***
항히스타민제	59 (12.3)	55 (10.3)	0.960

** : $p < .01$ *** : $p < .001$

그러나 주왕기 등(1989)⁴⁴⁾과 김현숙(1991)⁴²⁾의 종교에 따른 빈도의 보고에서 기독교 신자가 가장 낮은 흡연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3) 약물 남용 교육에 따른 약물 사용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물 남용에 관한 교육을 받은 학생과 교육 받지 않은 학생 사이에 담배 ($p < .001$), 술 ($p < .001$), 필로폰 ($p < .05$), 환각제 ($p < .05$), 수면제 ($p < .05$), 진해제 ($p < .001$) 사용 빈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약물 남용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사용 빈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약물 모두를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약물 남용에 관한 교육이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았거나 오히려 호기심을 더 유발시켰으리라 생각되며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고흥경(1990)⁴¹⁾에 의하면 담배 및 본드의 두가지 약물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 < .05$) 더 높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불만 대상과 수에 따른 비교

불만 대상에 따른 비교는 〈표8〉과 같다. 자신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담배, 환각제,

〈표 6〉 종교에 따른 약물 사용 실태

단위 : 명 (%)

	기독교 (N=413)	천주교 (N=44)	불교 (N=139)	유교 (N=10)	기타 (N=408)	χ^2
담배	138 (33.4)	12 (27.3)	61 (43.9)	6 (60.0)	174 (42.6)	13.462 **
술	288 (69.7)	31 (70.5)	99 (71.2)	7 (70.0)	286 (70.1)	0.112
대마초	6 (1.5)	-	7 (5.0)	1 (10.0)	9 (2.2)	9.767 *
코카인	3 (0.7)	-	2 (1.4)	1 (10.0)	3 (0.7)	10.543 *
각성제	61 (14.8)	12	18 (27.3)	2 (12.9)	59 (20.0)	5.966 * (14.5)
필로폰	1 (0.2)	-	2 (1.4)	-	3 (0.7)	3.018
마약	1 (0.2)	-	1 (0.7)	-	4 (1.0)	2.266
환각제	3 (0.7)	2 (4.5)	3 (2.2)	1 (10.0)	5 (1.2)	10.681 *
본드	10 (2.4)	2 (4.5)	8 (5.8)	1 (10.0)	22 (5.4)	6.311
신경 안정제	31 (7.5)	3 (6.8)	12 (8.6)	1 (10.0)	25 (6.1)	1.316
수면제	36 (8.7)	5 (11.4)	12 (8.6)	2 (20.0)	35 (8.6)	1.934
진통제	285 (69.0)	28 (63.6)	107 (77.0)	6 (60.0)	276 (67.6)	5.453
진해제	59 (14.3)	3 (6.8)	20 (14.4)	-	67 (16.4)	4.936
항히스 타민제	55 (48.2)	3 (6.8)	11 (7.9)	-	45 (11.0)	5.473

* : p<.05 ** : p<.01

진해제를 제외한 10가지 종류의 약물에서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친구에 대해서는 마약, 대마초, 필로폰을 제외한 11가지 종류, 가족에 대하여는 담배를 제외한 13가지 종류, 학교에 대하여는 담배와 진해제를 제외한 12가지 약물에서 불만이 있는 경우 불만이 없는 대상자보다 약물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각성제, 환각제, 수면제, 진통제의 약물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불만이 없는 경우도 나머지 10가지 약물의 사용 빈도가 높아 불만 대상과 약물 사용과의 관계는 규정지을수 없었다.

또한 불만 대상의 수에 따른 약물 사용 실태는 〈표 9〉와 같다.

불만 대상의 수에 따라 코카인(p<.05), 각성제(p<.05), 필로폰(p<.01), 본드(p<.01), 신경안

〈표 7〉 약물 남용 교육에 따른 약물 사용 실태
단위 : 명 (%)

	받았다 (N=184)	안받았다 (N=830)	χ^2
담배	94 (51.1)	297 (35.8)	14.889 ***
술	158 (85.9)	553 (66.6)	26.617 ***
대마초	6 (3.3)	17 (2.0)	0.999
코카인	2 (1.1)	7 (0.8)	0.101
각성제	35 (19.0)	117 (14.1)	2.867
필로폰	3 (1.6)	3 (0.4)	4.123 *
마약	2 (1.1)	4 (0.5)	0.937
환각제	6 (3.3)	8 (1.0)	5.836 *
본드	12 (6.5)	31 (3.7)	2.880
신경안정제	17 (9.2)	55 (6.6)	1.558
수면제	24 (13.0)	66 (8.0)	4.827 *
진통제	121 (65.8)	581 (70.0)	1.271
진해제	47 (25.5)	102 (12.3)	21.108 ***
항히스타민제	23 (12.5)	91 (11.0)	0.356

** : p<.05 *** : p<.001

정제 (p<.01), 수면제 (p<.05), 진통제 (p<.05), 항히스타민제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불만 대상 즉, 자신, 친구, 가족, 사회, 국가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경우에는 코카인, 필로폰, 본드를 전혀 사용한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성제 (11.8%), 수면제 (5.9%), 진통제 (61.8%)에서도 가장 낮은 약물 사용 빈도를 나타냈으며, 네가지 또는 다섯가지 불만 대상을 갖고 있는 경우는 코카인 (4.5%), 각성제 (28.8%), 필로폰 (4.5%), 본드 (9.1%), 신경안정제 (16.7%), 수면제 (19.7%), 항히스타민제 (22.7%)에서 가장 높은 약물 사용 빈도를 나타냈다.

이는 불만 대상이 전혀 없는 경우 약물 사용 빈도가 낮고, 반면에 불만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약물 사용 빈도와 불만 대상의 수와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청소년의 비행 경험

본 연구에서 조사된 청소년들의 비행 경험 빈도

는 〈표10〉과 같이 술집 출입경험 (43.0%)이 가장 많았으며, 음란 비디오 관람 (42.4%), 무단 결석 (17.4%), 흉기 소지 (11.0%), 성관계 (9.1%), 가출경험 (8.0%), 절도 (7.5%), 폭행 (6.0%)의 순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볼 때, 비행 종류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험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술집 출입이 7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음란비디오 관람이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음란비디오 관람이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여학생 각각 12.5%, 0.2%로 폭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김현숙 (1991)⁴³⁾이 술집 출입 (41.9%), 음란 비디오 관람 (41.6%), 흉기 소지 (11.1%), 성관계 (8.4%)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5. 약물사용 유무에 따른 비행

약물 사용과 비행 간의 관계를 보면 약물 사용자의 비행 행위는 주로 음란비디오 관람, 술집 출입, 무단 결석이 거의 모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약물을 사용하는 학생과 약물 사용경험이 없는 학생을 비교한 결과 무단 결석을 제외한 가출경험, 폭행, 흉기소지, 절도, 성관계, 음란비디오, 술집출입의 거의 모든 비행행위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통제를 제외한 약물 사용 비행자 중 폭행의 빈도가 가장 높고 성관계, 가출이 같은 빈도로 높게 나타났다〈표11〉.

이는 청소년들이 약물 사용 빈도가 커질수록 비행 성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주며, 또한 이들 약물들이 비행 행위와 관련이 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이것은 약물 사용 인구가 줄면 비행 빈도가 줄고 비행자 빈도를 줄이면 약물 사용자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로는 한계점이 있어 비행 성향과 약물 사용의 인과 관계 분석은 어려웠다.

〈표 8〉 불만 대상에 따른 약물 사용 실태

단위 : 명(%)

N	자 신		친 구		가 족		학 교		사 회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546	468	308	706	297	717	571	443	712	308
담 배	199 (36.4)	192 (41.0)	12 (41.2)	264 (37.4)	132 (36.1)	256 (44.4)	241 (33.9)	150 (42.2)	269 (37.8)	120 (40.4)
술	389 (71.2)	322 (68.8)	229 (74.4)	482 (68.3)	235 (79.1)	476 (66.4)	419 (73.4)	292 (65.9)	496 (69.7)	211 (71.2)
대 마 초	17 (3.1)	6 (1.3)	7 (2.3)	16 (2.3)	11 (3.7)	12 (1.7)	15 (2.6)	8 (1.8)	15 (2.1)	8 (2.6)
코 카 인	5 (0.9)	4 (0.9)	3 (1.0)	6 (0.9)	3 (1.0)	6 (0.8)	6 (1.1)	3 (0.7)	5 (0.7)	4 (1.3)
각 성 제	87 (15.9)	65 (13.9)	48 (15.6)	104 (14.7)	60 (20.2)	92 (12.8)	95 (16.6)	57 (12.9)	113 (15.8)	39 (12.9)
필 로 폰	4 (0.7)	2 (0.4)	1 (0.3)	5 (0.7)	3 (1.0)	3 (0.4)	5 (0.9)	1 (0.2)	4 (0.6)	2 (0.7)
마 약	5 (0.9)	1 (0.2)	2 (0.6)	4 (0.6)	3 (1.0)	3 (0.4)	4 (0.7)	2 (0.5)	4 (0.6)	2 (0.7)
환 각 제	5 (0.9)	9 (1.9)	5 (1.6)	9 (1.3)	7 (2.4)	7 (1.0)	11 (1.9)	3 (0.7)	11 (1.5)	3 (1.0)
본 드	28 (5.1)	15 (3.2)	18 (5.8)	25 (3.5)	24 (8.1)	19 (2.6)	34 (6.0)	9 (2.0)	30 (4.2)	13 (4.3)
신경안정제	47 (8.6)	25 (5.3)	28 (9.1)	44 (6.2)	34 (11.4)	38 (5.3)	35 (7.9)	27 (6.1)	45 (6.3)	27 (8.9)
수 면 제	53 (9.7)	37 (8.0)	34 (11.0)	56 (7.9)	37 (12.5)	53 (7.4)	59 (10.3)	31 (7.0)	65 (9.1)	25 (8.3)
진 룡 제	389 (71.2)	313 (66.9)	217 (70.5)	485 (48.7)	214 (72.1)	488 (68.1)	414 (72.5)	288 (65.0)	503 (70.6)	199 (65.9)
진 해 제	71 (13.0)	78 (16.7)	46 (14.9)	103 (14.6)	45 (15.2)	104 (14.5)	79 (13.8)	70 (15.8)	91 (12.8)	58 (19.2)
항히스타민제	68 (12.5)	46 (9.8)	40 (13.0)	74 (10.5)	39 (13.1)	75 (10.5)	72 (12.6)	42 (9.5)	80 (11.2)	34 (11.3)

〈표 9〉 불만 대상의 수에 따른 약물 사용 실태

단위 : 명 (%)

불만 대상수 N	0	1	2	3	4	5	χ^2
답 배	10 (29.4)	108 (37.5)	114 (37.9)	70 (39.5)	29 (43.9)	60 (40.5)	2.522
술	21 (61.8)	194 (67.4)	204 (67.8)	126 (71.2)	47 (71.2)	119 (80.4)	10.576
대마초	-	7 (2.4)	6 (2.0)	2 (1.1)	5 (7.6)	3 (2.0)	10.386
코카인	-	3 (1.0)	3 (1.0)	-	3 (4.5)	-	13.372 *
각성제	4 (11.8)	37 (12.8)	40 (13.3)	25 (14.1)	19 (28.8)	27 (18.2)	13.192 *
필로폰	-	1 (0.3)	2 (0.7)	-	3 (4.5)	-	19.996 **
마 약	-	1 (0.3)	2 (0.7)	-	2 (3.0)	1 (0.7)	8.265
환각제	-	3 (1.0)	4 (1.3)	2 (1.1)	3 (4.5)	2 (1.4)	5.663
본 드	-	8 (2.8)	11 (3.7)	5 (2.8)	6 (9.1)	13 (8.8)	15.498 **
신 경 안정제	2 (5.9)	22 (7.6)	10 (3.3)	11 (6.2)	11 (16.6)	16 (10.8)	19.172 **
수면제	2 (5.9)	20 (6.9)	21 (7.0)	18 (10.2)	13 (19.7)	16 (10.8)	13.652 *
진통제	21 (61.8)	181 (62.8)	212 (70.4)	132 (74.6)	45 (68.2)	111 (75.0)	11.324 *
진해제	4 (11.8)	51 (17.7)	45 (15.0)	22 (12.4)	12 (19.7)	14 (9.5)	7.613
항히스 타민제	3 (8.8)	30 (10.4)	26 (8.6)	23 (13.0)	15 (22.7)	17 (11.5)	11.720 *

* : p < .05 ** : p < .01

〈표 10〉 성별에 따른 비행 경험 빈도

단위 : 명 (%)

	남 (N=481)	여 (N=533)	계 (N=1014)
무 단 결 석	140(29.1)	36(6.8)	176(17.4)
가 출	64(13.3)	17(3.2)	81(8.0)
폭 행	60(12.5)	1(0.2)	61(6.0)
흡 기 소 지	108(22.5)	4(0.8)	112(11.0)
절 도	72(15.0)	4(0.8)	76(7.5)
성 관 계	82(17.0)	10(1.9)	92(9.1)
음란비디오	351(73.0)	79(14.8)	430(42.4)
술집 출입	362(75.3)	74(13.9)	436(43.0)

V. 결론 및 제언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학교 보건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충청남도 6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14명을 대상으로 1990년 12월3일부터 12월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4가지 약물 사용 경험에서 음주 70.1%, 진통제 69.2%, 흡연 38.6%, 각성제 15.0%, 진해

제 14.7%, 항히스타민제 11.2%, 수면제 8.9%, 신경안정제 7.1%, 본드 4.2%, 대마초 2.3%, 환각제 1.4%, 코카인 0.9%, 필로폰 0.6%, 마약 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통제와 각성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약물에서 남학생의 사용 경험도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2. 비행 경험 실태는 술집 출입 43.0%, 음란 비디오 관람 42.4%, 무단결석 17.4%, 흡기 소지 11.0%, 성관계 9.1%, 가출 경험 8.0%, 절도 7.5%, 폭행 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비행 경험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3. 대부분의 약물에서 남·여학생의 경우 모두 15~18세 사이에 약물 사용 첫 경험도가 가장 높았고, 사용 일수를 보면 담배의 경우 13.8%가 매일 흡연하고, 1.7%가 매일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담배(p<.01), 대마초(p<.05), 코카인(p<.05), 각성제(p<.05), 환각제(p<.05)는 종교에 따라 그 사용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불만 대상이 있는 경우 불만 대상이 없을 때보다 높은 약물 사용빈도를 보였고 다섯가지 모두에서 불만이 없는 경우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마약, 환각제, 본드에서 전혀 사용 경험이 없는

〈표 11〉 약물 사용에 따른 비행 경험 실태

단위 : 명 (%)

	담배		술		대마초		코카인		각성제		필로폰		마약		환각제		본드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N	391	623	711	303	23	991	9	1005	152	862	6	1008	6	1008	14	1000	43	971	72	942	90	924	702	312	149	865	114	900
무 단 결 석	128	48	156	20	11	365	7	169	35	141	4	172	4	172	9	167	23	153	22	154	34	142	73	63	42	134	23	153
	(32.7)	(7.7)	(21.9)	(6.6)	(47.8)	(16.7)	(77.8)	(16.8)	(23.0)	(16.4)	(66.7)	(17.1)	(66.7)	(17.1)	(64.3)	(16.7)	(53.5)	(15.8)	(30.6)	(16.3)	(37.8)	(15.4)	(16.1)	(20.2)	(28.2)	(15.5)	(20.2)	(17.0)
가 출	63	18	75	6	8	73	3	78	19	62	2	79	1	80	7	74	18	62	18	63	25	56	53	28	17	64	14	87
	(16.1)	(2.9)	(10.5)	(2.0)	(34.8)	(7.4)	(33.3)	(7.8)	(12.5)	(7.2)	(33.3)	(7.8)	(16.7)	(7.9)	(50.0)	(7.4)	(44.2)	(6.4)	(25.0)	(6.7)	(27.8)	(6.1)	(7.5)	(9.0)	(11.4)	(7.4)	(12.3)	(7.4)
폭 행	54	7	56	5	8	53	3	58	15	46	2	59	1	60	6	55	17	44	10	51	15	46	37	24	11	50	8	53
	(13.8)	(1.1)	(7.9)	(1.7)	(34.8)	(5.3)	(33.3)	(5.8)	(9.9)	(5.3)	(33.3)	(5.9)	(16.7)	(6.0)	(42.9)	(5.5)	(39.5)	(4.5)	(13.9)	(5.4)	(16.7)	(5.0)	(5.3)	(7.7)	(7.4)	(5.8)	(7.0)	(5.9)
흡 기 소 지	100	12	106	6	12	100	3	109	20	92	1	11	-	112	8	104	20	92	17	95	23	89	65	47	29	83	22	901
	(25.6)	(1.9)	(14.9)	(2.0)	(52.0)	(10.1)	(33.3)	(10.8)	(13.2)	(10.7)	(16.7)	(11.0)		(11.1)	(57.1)	(10.4)	(46.5)	(9.5)	(23.6)	(10.1)	(25.6)	(9.8)	(9.3)	(15.1)	(19.5)	(9.8)	(19.3)	(10.0)
절 도	68	10	71	5	10	66	5	71	16	60	2	74	1	75	8	68	17	59	15	61	19	57	52	24	18	58	10	66
	(17.4)	(13.2)	(10.0)	(1.7)	(43.5)	(6.7)	(55.6)	(7.1)	(10.5)	(7.0)	(33.3)	(7.3)	(16.7)	(7.4)	(57.1)	(6.8)	(39.5)	(6.1)	(20.8)	(6.5)	(21.1)	(6.2)	(7.4)	(7.7)	(12.1)	(6.7)	(8.8)	(7.3)
성 관 계	84	8	87	5	6	86	3	89	23	69	1	91	-	92	9	83	23	69	13	78	27	65	56	36	20	72	11	81
	(21.5)	(1.3)	(12.2)	(1.7)	(26.1)	(8.7)	(33.3)	(8.9)	(15.1)	(8.0)	(16.7)	(9.0)		(9.1)	(64.3)	(8.3)	(55.5)	(7.1)	(18.1)	(8.4)	(30.0)	(7.0)	(8.0)	(11.5)	(13.4)	(8.3)	(9.6)	(9.0)
음란비디오	290	140	390	40	18	412	6	424	72	358	4	426	2	428	12	418	36	394	46	384	70	360	272	158	95	335	59	371
	(74.2)	(22.5)	(54.9)	(13.2)	(78.3)	(41.6)	(66.7)	(42.2)	(47.4)	(41.5)	(66.7)	(42.3)	(33.3)	(42.5)	(65.7)	(41.8)	(83.7)	(40.6)	(63.9)	(40.8)	(77.8)	(39.0)	(38.7)	(50.6)	(63.8)	(38.7)	(51.8)	(41.2)
술집 출입	316	120	414	22	19	417	6	430	73	363	3	433	1	434	11	425	34	402	45	391	72	364	271	165	94	342	59	377
	(80.9)	(19.3)	(58.2)	(7.3)	(82.8)	(40.1)	(66.7)	(42.8)	(48.0)	(42.1)	(50.0)	(42.9)	(16.7)	(43.1)	(78.8)	(42.5)	(79.1)	(41.4)	(62.5)	(41.5)	(80.0)	(39.4)	(38.6)	(52.9)	(63.1)	(39.5)	(51.8)	(41.9)

것으로 나타났다.

6.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학생에서는 음란 비디오 관람, 술집 출입, 무단결석의 빈도가 높았으며,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비행 경험이 높았다..

참 고 문 헌

1. 민병근, 김현수, 청소년의 약물 남용, 신경정신의학, 26(4) : 605-601, 1987
2. 김현수, 민병근, 이철, 약물 남용 청소년의 환경 역동적 분석 중앙의대지, 13(4), 1988
3. 이길홍, 이재광, 나철, 박두병, 김현수, 민병근, 청소년 비행의 약물 상관 변인 분석, 한국의과학, 17(2) : 130-147, 1985
4. 주왕기, 약물 남용과 한국의 마약류 사범 실태, 사법행정, (3) : 42-54, 1990
5. 주왕기, 약물남용, 세계사, 서울, 1989
6. 이춘재 외, 청년 심리학, 중앙적성 출판사, 1988
7. 교육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89
8. 주왕기, 주간 새건강, 1,2, 1991
9. WHO, Twentieth Report on the 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 Technical Report Series, WHO, Geneva, 155, 1974
10. Millmann, R.B., and Khuri, E.T., Adolescence and Substance Abuse in J. H. Lowinson(ed.), Substances Abuse : Clinical Problems and Perspectives, Williams and Wilkims, Baltimore, 1981
11. Brill, and Hirose, T., The Rise and Fall of a Methamphetamine Epidemic : Japan 1945-1955, Semin Psychiatry, 1969
12.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서울시 교육연구원, 1988
13. 이봉건, 이상심리학, 성화사, 서울, 1989
14. Mendelson, J.H., Experimentally Induced Chronic Intoxication and Withdrawal in Alcoholics,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Supplement 2), 1964
15. Knight, R.P., The Dynamics of Chronic Alcoholism,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86, 1937
16. Goodwin, D.W., Substance Induced and Substance Use Disorders : Alcohol, in J.H. Griest, J.W. Jefferson, & R.L. Spitzer(eds.), Treatment of Mental Disorders, Oxford Uni. Press, New York, 1982
17. 박중규, 약물사용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8. Mclellan, A.T., Woody, G.E. and O' Brian, C.P., Development of Psychiatric Illness in Drug Users : Possible Role of Drug Preference, N. Engl. J. Med.; 301, 1979
19. Spotts, J.V. and Shonty, F., Ego Development, Dragon Fights, and Chronic Drug Abusers, Int. J. Addict, 1982
20. Hale, M.S., Hesselbrock, J. and Hesselbrock, V., Childhood Deviance and Sociopathy in Alcoholism, J. Psychiat. Treat. Eval., 4, 1982
21. 이수일, 약물 남용, 인간과학, 5(1) : 125-132, 1989
22. Wiener, J.M. and Egan, J.H., Heroin Addiction in and Adolescent Popul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2, 1973
23. Baer, D.J., and Corrado, J.J., Heroin Addict Relationships with Parents During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 124, 1974
24. Polk, K. and Schafer, W., *School and Delinquenc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2
 25. 이길홍, 한국 청소년의 정신 활성 물질 사용 장애에 관한 역학적 고찰, *한국의 과학*, 21 (1), 1989
 26. Elliot, M. A.,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Sagepub. Inc., Newbury Park, 1985
 27. Plant, M. A., *Drug Takers in an English Town*, Tavistock, London, 1975
 28. Kandel, Inter and Intra Generational Influences on Adolescent Marihuana Use, *J. of Soc. Issue*, 1974
 29. Huba, G. J., Wingard, J. A., & Bentler, P. M., *Beginning Adolescent Drug Use and Peer and Adult Interaction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 2, 1979
 30. NIDA, *Adolescent Peer Pressure*, 1981
 31. Tarter, R. E., Are There Inherited Behavioral Traits That Predispose to Substance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1988
 32. Chinlurd, S., *Juvenile Offenders and the Drug Problem*, in *Problems of Adolescents*, 1974
 33. 변상호, 이태복, 이연수, 청소년의 습관성 약물 등의 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국 과학수사연구소연보*, 13 : 32-36, 1978
 34. 신태송, 김광일, 약물 남용의 최근 동향, *한의학회지*, 17(3) : 195-201, 1974
 35. 서원벽, 약물 남용에 관한 임상적 고찰, *신정신의학*, 16(2) : 197-217, 1977
 36. 이길홍, 이재광, 김현수, 민병근, 접촉제 드 흡입으로 인해 입원한 청소년 정신장애자, *한국의과학*, 15(3) : 214-225, 1983
 37. 윤백헌, 최근 마약 환자의 동태 분석, *대한학회지*, 17(5) : 432-441, 1970
 38. 이화자, 부산 시내 고등학생의 각성제 복용 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의대 잡지*, 21(2) 455-463, 1981
 39. 최연아,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 사용 실태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40. 황영숙, 청소년의 약물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41. 고흥경, 서울 시내 일부 청소년의 약물 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고등학교 3학년 호를 중심으로-, 이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42. 김현숙, 청소년의 약물 남용과 문제 행동 형간의 관계분석-제주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4(1) : 88-91, 1991
 43. 김현수, 박인철, 약물남용 청소년의 사회 신의학적 연구, 2월 11일자 리빙뉴스 12, 1989

= Abstract =

The Status of Drug Use of Juveniles and their Deliquent Behaviors
-Based on those of Boys and Girls on the Third Years
in High School of Chungnam Province-

Kim, Sook-Kyeong (Buyeo Girl's High School)
So, Hee-You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d conducted to push our society for getting some proper measures of the anti-drug abuse and adopting this study as a fundamental data for the school health education. Sample subjects were the 3rd grade of high school in Chungnam Province and the number were 1,014. The data had been collected on Dec. 3th-8th, 1990 according to the tool of Institute on Drug Abuse of Korea. And then Frequency and χ^2 -test were need to analyse of data by SPSS-X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y had used 14 kinds of drugs : 70.1% of the subjects students used alcohol, 69.2% analgesics, 38.6% cigarette, 15.0% stimulants, 14.7% antitussives, 11.2% antihistamines, 8.9% hypnotics, 7.1% tranquilizers, 4.2% inhalants, 2.3% marijuana, 1.4% hallucinogens, 0.9% cocaine, 0.6% amphetamines, and 0.6% narcotics. The boys' drug using rate is higher than girls' except in analgesics and stimulants.

2. With respect to misbehaving, 43.0% of the students said they had had pop houses, 42.4% adult video, 17.4% unexcused absence from school, 11.0% dangerous weapon, 9.1% sexual intercourse, 8.0% disappearance from home, 7.5% blackmail, and 6.0% assault. In every kinds of misbehaving, the boys' misbehaving rate is higher than the girls'.

3. Almost every kinds of drugs have the students first used at the age of 15 through 18. And 13.8% of the students smoked every day and 1.7% drank every day.

4. The frequency of the drug using such as cigarette ($p < .01$), marijuana ($p < .05$), cocaine ($p < .05$) and narcotics ($p < .05$) showed the sta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ligions of the subjects

5. The subjects who has complaints about someone use more drugs than the ones who doesn't, and who doesn't have any complaints about five elements have never used drugs such as marijuana, cocaine, amphetamines, narcotics, hallucinogens, and inhalants.

6. The drug using subjects have the more experiences of adult video, pop houses, and unexcused absent from school than the non-drug using ones. It means that the subjects who use drug were apt to do misbehaving more often than the ones who have never used them, and delinquent boys and girls use more drugs.